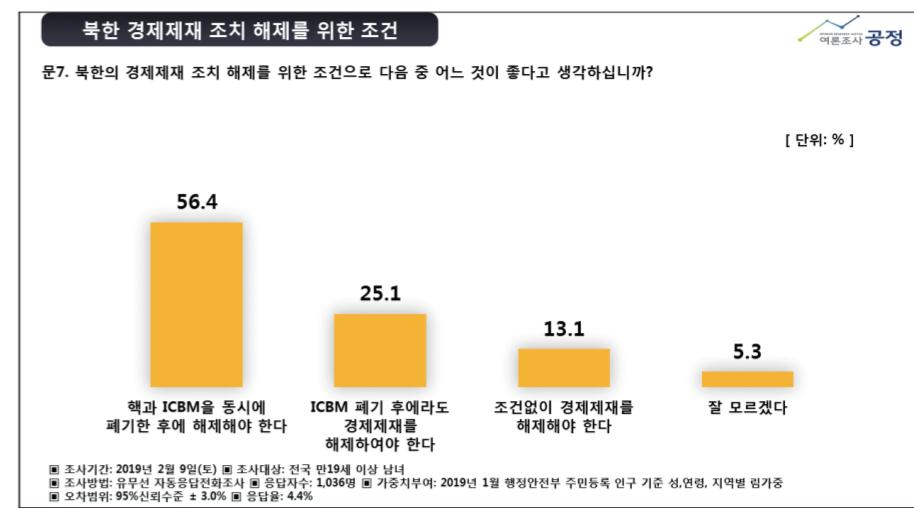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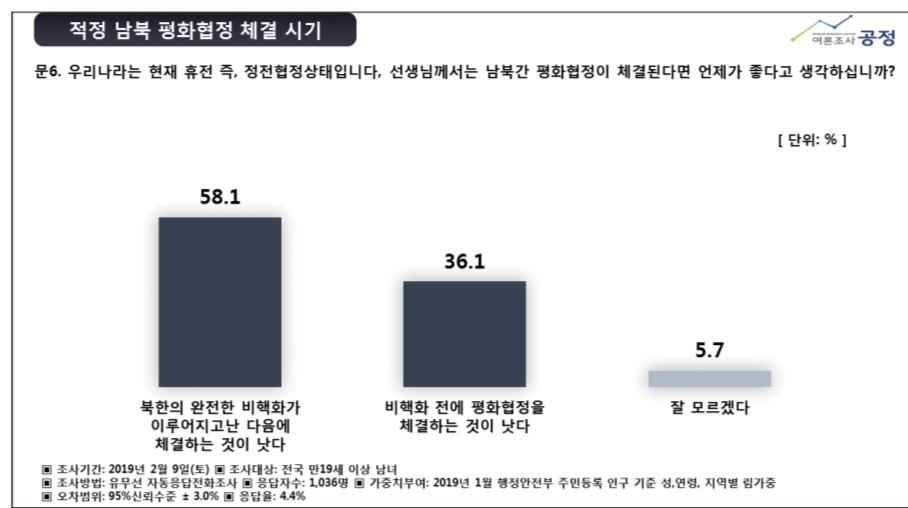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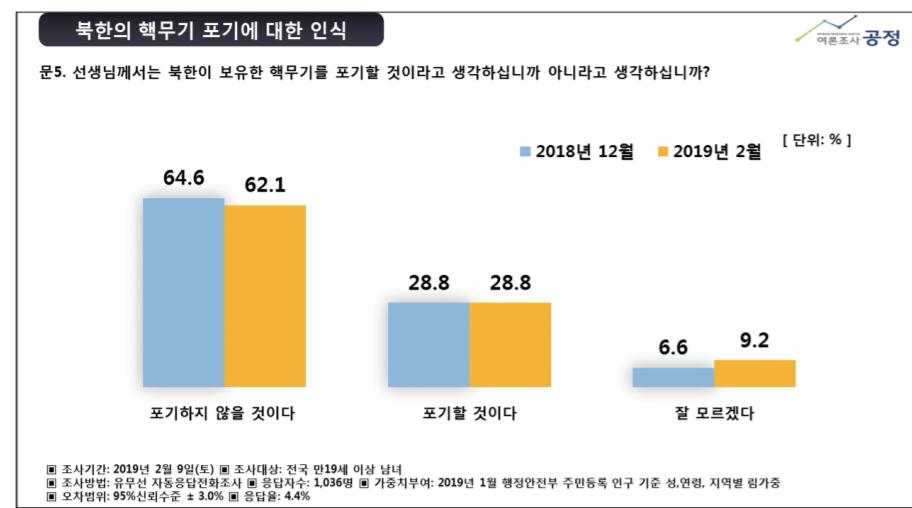


국민 64.3% “北核 포기 않을 것” 여론조사 공정, 성인남녀 1,063명 설문조사



‘펜앤드マイ크’가 국내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월 9일 하루 동안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하여 실시했다.

먼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국민 64.6%가 ‘북한 핵무기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성, 연령, 지역별 분석결과 모든 집단에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만60세 이상은 73.0%, 대구·경북(75.4%)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지정당별 더불어민주당(52.5%), 정의당(50.6%) 지지층에서는 ‘포기할 것이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자유한국당(88.6%), 바른미래당(81.9%), 기타정당(84.5%) 지지층에서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한편, ‘포기할 것이다’라는 응답의 비율은 28.8%, ‘잘 모르겠다’는 9.2%였다.

이어 ‘남북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언제가 좋을지’에 대해, 국민 58.1%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후 평화협정 체결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다.

성, 연령, 지역별 분석결과 만40~49세,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북한

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난 다음에 체결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만60세 이상 연령층(68.8%), 대구·경북(74.1%), 강원·제주(74.2%)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난 다음에 체결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비핵화 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46.3%로 높게 나타났으며, 만40~49세 연령층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난 다음에 체결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다.

성, 연령, 지역별 분석결과 만40~49세,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북한

지지정당별 더불어민주당(59.8%), 민주평화당(51.5%), 정의당(64.1%) 지지층에서는 ‘비핵화 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자유한국당(86.1%), 바른미래당(75.2%), 기타정당(74.8%) 지지층에서는 ‘비핵화가 이루어지고난 다음에 체결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의 비율은 36.1%, ‘잘 모르겠다’는 5.7%였다.

더불어 ‘북한의 경제제재 조치 해제를 위한 조건’에 대한 질문으로, 국민 56.4%는 ‘북한 경제제재는 핵과 ICBM을 동시에 폐기한 후에 해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 후에 해제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민주평화당(51.6%) 지지층에서는 ‘ICBM 폐기 후에도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정의당’(37.3%) 지지층에서는 ‘조건없이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한편, ‘ICBM 폐기 후에도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25.1%, ‘조건없이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13.1%,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5.3%였다.

이외에도 정당지지를, 2017년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을지, 안희경 전 충남지사의 형량 등에 대한 현안 조사가 있었다.

노형구 기자



한국기부문화연구소 비케이 안(Bekay Ahn) 소장 ©연세대

Campaign Manager) 시험 응시가 가능

진로를 모색하는 많은 이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은식 기자

국내 최초, 연세대에서 세상을 품은 ‘크리스천 필란트로피’

금년 봄학기부터 연세대학교(총장 김용학)에서 필란트로피와 신학을 융합(Christianity + Philanthropy)해 기부문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꾸하고 있다.

기독교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부와 모금의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수혜자 중심, 결과 중심, 가치 중심

에 근본을 두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시도가 돋보이는 일이다.

강의는 연합신학대학원(원장 권수영)과 일반대학원(대학원장 박승한)에서 ‘크리스천 필란트로피’라는 제목으로 ‘신앙을 근거로 하는 현명한 기부(wise giving),

똑똑한 모금(smart fundraising)’ 주제를 가지고 이론과 실무를 다룰 예정이다.

수업은 워크샵 형태의 코너스톤(cornerstone) 프로젝트로 진행되며 3학점을 부여한다. 이번 강의를 맡은 국내 기부문화의 오피니언 리더 한국기부문화 연구소 비케이 안(Bekay Ahn) 소장은,

“인간 역사상 기독교와 필란트로피의 통합의 시도는 융합, 통섭의 과정을 거쳐, 이제는 단순한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새로운 부의 가치를 창출해 내는 새로운 시대의 단계로 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본 강의 수강 후에는 캠페인 매니저 민간 자격증인 CCM(Certified

먼저 시청한 후 성경을 읽으면 전체 내용의 흐름을 쉽게 파악하고 맥을 따라 읽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점이 있다.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SNS에서 성경 통渎을 하고 있는 그룹이나,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경통독교실에서도 먼저 이

동영상을 시청한 후 성경 통渎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경 읽기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개특강에는 언론사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나래 기자

김윤희 교수의 ‘성경 에센스’ 공개특강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민족을 위한 성서한국운동(Korea Bible Study Movement)’의 일환으로 성경 66권의 핵심을 5분 여 분량으로 소개하는 “김윤희 교수의 ‘성경에센스’” 공개특강이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5가 기독

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공개특강에는 박성민 목사(한국 CCC 대표)가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민족을 위한 성서한국운동(Korea Bible Study Movement)”에 대한 비전을 설명한다. ‘KBS Movement’

은 한국CCC 설립자 김준곤 목사가 민족복음화운동을 전개하면 한국 교회 성도들의 성경 읽기와 공부를 통한 삶의 변화를 강조하면 시작됐다. 김 목사는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민족”을 도전했다.

이어 김윤희 교수(FWIA 대표)가 “성경에센스” 동영상을 소개하고 활용법을 설명한다.

‘김윤희 교수의 성경 에센스’는 5~6분 분량으로 성경 각 권의 핵심 내용을 자막과 평화하게 설명해 준다. 이 영상을

먼저 시청한 후 성경을 읽으면 전체 내용의 흐름을 쉽게 파악하고 맥을 따라 읽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점이 있다.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SNS에서 성경 통渎을 하고 있는 그룹이나,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경통독교실에서도 먼저 이

동영상을 시청한 후 성경 통渎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경 읽기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개특강에는 언론사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나래 기자

www.kogas.or.kr

굴착공사 신고번호
1644-0001

굴착공사 신고 및 사전협의는 굴착공사의 처음입니다

굴착공사에 의한 배관 손상사고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굴착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굴착신고는 필수입니다.

굴착신고 및 사전협의는 굴착공사의 처음입니다

굴착공사계획 신고 ● 접수번호 발급 ●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 굴착공사개시 통보 ● 굴착공사 시행

※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설교

(공동체의) 크립토나이트 깨기 - 세상을 Change 하라 (고전5:9-13)

◆고린도 전서
5장 9-13절

9.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11.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2.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13.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존 비비어의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책의 본래 제목은 [Killing Kryptonite]입니다. 여기서 '크립토나이트'라는 단어는 1940년대 작가들이 만들어 낸 가상의 물질입니다.

당시 유행하던 '수퍼맨'이 너무 완벽해지자 사람들은 식상해지기 시작했고, 수퍼맨의 고향 행성에서 가져온 물질이 수퍼맨의 힘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설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물질이 크립토나이트입니다. 크립토나이트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순간 수퍼맨은 평범한 인간처럼 약해지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는 그의 책에서 '크립토나이트'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영적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여호수아 7장은 이스라엘에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후에 일어난 무서운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60만 대군을 이끌고 여리고를 함락시킨 강한 군대가 '아이'라는 작은 성에서 패배한 이야기죠.

그 거대한 전투에서 한 명의 사상자는 내지 않았던 이스라엘 군대가 작은 아이 성의 전투에서 36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군대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



만나교회
김상ما 목사

라는 명령을 어긴 '아간'이라는 사람 하나로 아기된 일이죠. 그런데 정작 죄를 범한 아간에게 화가 미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머니와 아버지 72명이 자식을 잃은 슬픔을 겪어야 했고, 36명의 아내가 과부가 되었고,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무섭게 질주하며 승리를 맛보던 이스라엘 군대가 순식간에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호야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수 7:7)

이런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백성 중에 '한 명'이 언약을 어겼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를 지은 자가 한 명 있다!"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 사람 중 누구도 아간이 범죄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도 아간의 탐욕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존 비비어의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영적 크립토나이트'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영적 크립토나이트를 찾아내 아간을 추궁합니다. 그리자 아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7장 20-21절.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란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그 무게가 오십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님을 보고 탐내어 가겠나이다."

죄를 지은 사람 개인에게 참혹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은 별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한 개인으로 인해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개인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막대하다면, 참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공동체에 속한 한 개인에게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전체에 악 영향을 미친 죄에 대하여 사도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문맥으로 보면 교회 밖에 있는 비기

독교인이 이와 같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이 죄를 다루지 않고 있는 리더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공동체의 리더는 이러한 죄에 대하여 수수방관 했을까요?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혹,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일을 다루어 굳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혹은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 재정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유력한 인사는 아니었을까?

혹은 이런 걱정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죄를 지적하므로 인해 교회를 떠나면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할까 염려되어 있어서 말이죠.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혹은 조용히 시간과 기회를 주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평소에 사람과 용서 그리고 관용을 이야기 하던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권고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죄를 지은 자는 /이 악한 자를 내주어야 한다. /이 악한 자를 내보내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사도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고의적인 죄를 용인하면 그것이 누룩처럼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공동체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신자와 비신자를 엄격히 구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음행'이라는 죄가 누룩처럼 번지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지만,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1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

들이나 속여 빼앗은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한 영적상태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친구가 되어 주셨던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고 섬겨주어야 합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을 '신자'라 지칭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이다.

사도바울은 왜 이리 신자들의 죄에 대하여 강경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누룩'이라는 말과 연관시켜 본다면, 한 사람의 죄가 전염병처럼 번져 나가는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신자'를 보호하려다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오전 7시 55분 6혁의 항공모함에서 출발한 일본 공군기 353대가 별때 같이 하와이 진주만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곳의 미국 해군 기지를 공격해서 21척의 군함을 침몰시키고 117대의 항공기를 파괴하고, 2003명의 사상자를 내고 960명의 실종자와 1100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이 태평양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실이 한 사람의 무관심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진주만 기습 55분 전, 정확하게 오전 7시에 태평양에 있는 미군 레이더 기지에서 두 명의 병사가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레이더에 이상한 점들이 점점 많아지더니 스크린을 꽉 채운 것입니다. 그 순간 깜짝 놀라서 중위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위는,

"걱정마라, 우리 편 비행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5분 후에 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무관심으로 인해 엄청난 비

극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일어나는 현상들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이고, 진짜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죄로부터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사도바울이 아주 중요 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멀리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교만으로 발전합니다. 당연히 죄에 대하여 자기 정당화를 하다보면 교만해질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죄는 변명을 등반합니다.

그 다음에 죄는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찾습니다. 죄인들끼리 뭉치며 죄의 세력을 넓혀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죄인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죄가 죄처럼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신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죄지은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남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숨겨진 남의 죄를 들키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근원은 처리되지 못한 죄의 문제입니다. 고백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교만으로 이어지고, 자신을 정당화 하다보니 자꾸 다른 사람을 헐뜯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곳의 미국 해군 기지를 공격해서 21척의 군함을 침몰시키고 117대의 항공기를 파괴하고, 2003명의 사상자를 내고 960명의 실종자와 1100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이 태평양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처럼 늦게 들어오는 사람을 보는 순간 죄책감이 덜해집니다. "나 말고도 늦은 사람은 있어?"

그런데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권리나 장로님들 되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를 정당화 할 구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군복으로 있었던 시절이에요. 30년 전이에요. 제가 적성 마지막에 폭탄을 했는데 제가 했던 것에 대해서는 부대 밖에 있었어요. 거기에 친구들 헤어지면서 대화에 아주 무섭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통제가 아닌 참된 동행으로...
'통제'의 욕구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습니다.
두려움과 사랑은 정 반대되는 용어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니 그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심경》 첫 구절 중에서

다산 정약용, 퇴계 이황, 정조 이산... 그들은 왜 마지막까지 《심경》을 읽었을까요?

"지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온 힘을 다합으로써.
그간의 공부를 《심경》으로 매듭짓고자 한다. 아, 능히 실천할 수 있을까!" — 다산 정약용

"나는 《심경》을 얻은 뒤에 비로소 마음을 공부하는 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공부에 뜻을 두고 일어서 평생 분발할 수 있는 힘은 이 책에서 나왔다." — 퇴계 이황

공부의 마지막에서 도달한 깊은 경지, 마음
마음공부의 '끝판왕'이자 지금은 잊힌 조선 최고의 베스트셀러,
《심경》이 이야기해주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

다산의 마지막 공부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
조용제 지음 | 값 15,000원



내가 단단해지는 새벽공부
천년의 내공
조용제 지음 | 값 15,800원

정림출판



다. 우리의 삶이 언제부터인가 ‘방어적’이 되어버렸다면 내 속에서 두려움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지으면 스스로 통제하기 시작하고요.

두려움 때문에 성을 쓸고 벽을 쌓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대로 인해 자의적인 상상을 하게 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상의 이야기들은 또 다른 상처가 되어 둘 아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두려움을 내어 풀고 참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동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풀었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과 돌봄을 통해 담대해 진다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 사랑이 공동체를 담대하게 만들어 줄까요?

먼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동체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기 경험하는 일이기도 한데,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화장실도 못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화제가 함께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뜻밖화를 하다 보니, 자신이 그 자리를 뜨는 순간 그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죠.

누군가 내 뒤를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비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합니다. 함께 있지만 그 공동체에는 힘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빙름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며 지쳐가고 되지요.

존 비비어의 [영적 무기력 깨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저자의 친구 중에 미국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 실(Navy SEALs)에 근무한 사람이 있어 물어봤답니다. 어떤 부대보다도 끈끈한 전우애를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이죠.

“네이비 실은 자기 자신을 가장 나중에 생각합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전우를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등 뒤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전우들이 뒤를 받쳐 줄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 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갑옷이 전부 앞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뒤를 막는 갑옷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의 뒤를 책임져 주기 때문이죠.

강한 부대는 절대로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한 사람의 계획으로 인해, 한 사람이 악해집으로 인해 부대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강한 부대는 누군가 내 뒤를 지켜주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에 나오는 프란체스코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서양의 기독교 제국들이 동양의 이슬람

제국들과 충돌했던 13세기 십자군 전쟁 당시 세상을 살았던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를 봐도 사람의 힘을 확인할 수 있다.

1219년 이집트에서 십자군이 술탄 말릭 알 카밀의 군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일 당시, 프란체스코는 십자군 사령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술탄을 찾아갔다.

다들 술탄이 무자비한 괴물이며 적진에 들어갔다는 무시무시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충만한 프란체스코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무기도 신발도 없이 달랑 걸어 하나님과 걸친 채 전선을 건넜다. 놀란 이슬람 병사들은 뭔가에 훌린 듯 그를 술탄 앞으로 인도했다.

“주님의 평안이 왕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인사하며 자신을 십자군이나 유럽의 왕 혹은 교황의 사자가 아닌 “예수님의 사자”로 소개했다.

프란체스코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챈 왕은 그를 귀빈으로 초대해 그곳에 머물게 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며칠 동안 함께 식사를 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알고 보니 술탄은 미개한 폭군이 아니라 마음이 꽤 열린 철학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두려움을 모르는 프란체스코에게서 예수님이 대해 더 배우기를 원했고, 프란체스코도 결론으로 술탄에게서 배웠다.

두 사람은 환대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피의 시대 한복판에 평화의 오아시스를 세웠다. 종교가 성벽을 세우고 전쟁을 촉발시키는 곳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평화로운 철학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크리스천의 삶의 규범은 하나님의 평

가에 달린 문제이자, 자신의 기준에 달린 문제이다.

세속화된 크리스천들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옵니다.

세속화된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입니다. 조급한 협박을 해도, 조금만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 같아도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이 우습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인들뿐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를 짓기 위해 불법을 행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 성전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조롱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 중에 솔과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를 인도하지만 평일에 술집에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교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 한 교인을 만났는데 서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자주 가던 술집의 마님을 그 교회에서 만난 것입니다.

만나교회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수치스럽게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지 못한 목사님이 숨어서 담배를 피다가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고 구원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즉,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를 배워야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크리스천들의 삶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세속화된 크리스천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세속에 물들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이 되면 훌륭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죄를 짓고, 교회에 와서는 회개하는 삶이 반복되는 유형입니다.

또한 고대와 중세의 수도원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혼탁한 세상에서 깨끗한 영성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그 어떤 영성훈련에서도 죄의 문제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결국 인간이란 죄의 문제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삶에서 떠나도 그 삶은 부분들이 그 곳에서도 역시 존재하는 것이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런 세속화된 크리스천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3-4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락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세상에서 살고 구별되느냐에 따라 하나님인 그 사람을 평가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규범은 하나님의 평가에 달린 문제이자, 자신의 기준에 달린 문제이다.

세속화된 크리스천들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옵니다.

세속화된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입니다. 조급한 협박을 해도, 조금만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 같아도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이 우습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인들뿐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를 짓기 위해 불법을 행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 성전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조롱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 중에 솔과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를 인도하지만 평일에 술집에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교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 한 교인을 만났는데 서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자주 가던 술집의 마님을 그 교회에서 만난 것입니다.

만나교회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수치스럽게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지 못한 목사님이 숨어서 담배를 피다가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고 구원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즉,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를 배워야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주변에 이런 세속적인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둘째는, 금욕적인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에세네파’라 하여 아예 광야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싱거운 음식에 맛을 내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 갈증’을 유발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신앙을 구체화 하느냐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유한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Opinion Leader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면서 크리스천 공동체를 형성해 모이십니까?

신양적인 모임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영성을 지켜줄 지 모르지만 그 공동체가 살피면서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삶에서 떠나도 그 삶은 부분들이 그 곳에서도 역시 존재하는 것이 삶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대개가 삶을 쉽게 살려는 편의주의에서 시작됩니다. 삶에서 고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의 투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명 받는다’는 것을 너무 쉽게 목회자로 부를 받았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 시대는 목회자보다 삶에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라, 삶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멀리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을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주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야곱을 보세요.

그가 집을 떠나 하란에서 와삼촌과 함께 살아야 하던 때, 그곳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 때문에 그 와삼촌의 집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가 종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머물 때, 요셉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고 그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았고 애굽 전체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에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삶에서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의 현실에서 떠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크리스천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지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빛’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싱거운 음식에 맛을 내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 갈증’을 유발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신앙을 구체화 하느냐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유한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Opinion Leader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면서 크리스천 공동체를 형성해 모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삶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시편 15편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멀리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을 기역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야곱을 보세요.

그가 집을 떠나 하란에서 와삼촌과 함께 살아야 하던 때, 그곳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 때문에 그 와삼촌의 집이 축복을 받았습니다.